



치조열환자에 있어서 자가장골 PMCB를 이용한 이차치조골이식술후의 예후에 관한 임상적 연구

강나라*, 김명진, 이정근, 남기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본연구는 이차치조골 이식후 예후에 관한 연구로 방사선학적인 연구를 통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고찰로 장골 채취후 분쇄망상골 이식을 이용한 이차 치조골 이식을 시행한 편측성 구순구개열을 동반한 환자(남자 25명, 여자5명)중 12개월이상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정기 점검 기간은 24 ± 12(SD) 개월이었다. 파노라마 상을 이용한 치조골의 흡수정도를 정상골과 비교하여 Bergland Index에 따른 분류에 따라 측정하였다. 20명환자에서 type I (66.7%), 9명 환자에서 type II (30%), 1명 환자에서 type III (0.3%)의 결과를 보였다. 측정된 치조열의 너비 및 성별, 위치, 점검기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너비와 예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학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6.7%의 환자에서 수술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치조골의 연속성이 유지되었고 기능및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 보고한다.

A clinical study on the prognosis after secondary bone graft using iliac PMCB in the cleft alveolous patients.

Na-Ra Kang*, Myung-Jin Kim, Jeong-Keun Lee, Ki-Weon Nam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s the alveolar bone change after secondary bone graft with bony ridge height and the prognosis of bone graft. 30 cleft patients(25 male and 5 female) who had cleft defect of the alveolar ridge, were rehabilitated with particulated medulloconical bone grafts from iliac bone. The period of observation ranged from 12 to 48 months, with a mean of months after secondary bone graft, 20(66.7%) patients were classified by type I (on the Bergland Index 1981), 9(30%) patients, by type II, one(0.3%) patient, by class III. All patients has bony bridge and no complications, but, classification does not depends on cleft alveolus width. Secondary bone graft in cleft patient shows good bony ridge continuity and other complications were not found.